

‘본것’과 ‘아는것’의 차이

송하춘

소설가·고려대 교수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에게 짤막한 글을 한 편씩 씌워 보면 여러가지로 흥미롭다. 글쓰기에 대한 정보도 정보러니와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이번 학기 제목은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가슴을 절실하게 울렸는지, 제목을 내걸면서 잠시 정답을 예상해 보기도 한다. 누군가는 몇 살 때 사랑을 처음 느꼈다고 고백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우정을, 또 누군가는 신앙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사랑과 우정과 신앙과, 그런 것들은 너무 소중해서 아무나 함부로 깨닫기 어려운 것일 테니까.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옛날 갓난아기 시절로 되돌아가 산부인과 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맨처음 세상에 나오자 어머니 얼굴이 보이고, 의사가 서 있고, 간호사가 분주히 왔다갔다 하더라는 것이다.

이건 빈말이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곁에 어머니가 누웠을 것이고, 병원에서 태어났으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거기 서 있을 테지만 그건 짐작일 뿐 직접 본 것이 아니다. 진짜 보았다고 우겨도 독자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 진짜 ‘본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어려움이 아마 그런 것일 터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을 쓰라니까 그만 병실로 먼저 달려가버린 글들을 쓰게 된 것이다. 작가와 독자의 좁히기 어려운 거리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서 문학선생이 되다보면 이따금씩 뭐 읽을 만한 책 좀 없냐는 물음을 받는 때가 있다. 그런 주문에는 선뜻 응하는 법이 아닌 줄을 나는 안다. 진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그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읽어 봐도 쓸 만한 책이 없더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함께 글 쓰는 일을 업으로 가진 사람끼리 왜 그런 편견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책은 원래 재미있고도 유익한 법이다. 어떤 책을 일컬어, 재미는 있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유익 하기는 한데 재미가 없다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다. 책이란 재미가 있으면 유익 하기도 하고, 유익하면 재미도 있는 법이다. 아까 ‘본 것’과 ‘아는 것’을 예로 들었듯이, 참으로 재미있고도 유익한 책은 그 안에 어떤 ‘발견’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독자는 그것을 발견할 줄 안다. 진정한 작가는 또한 그 발견을 쓴다.

책이 너무 두터워지는 것도 독자를 답답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다. 책 속의 내용이 작가의 어떤 발견이라면, 요즈음 책들 속에는 웬 발견이 그리도 많은지, 요즈음 소설들은 썼다 하면 대하지번 이다. 소설은 시대별로 쓰는 게 아니다. 주제별로 쓰는 것이다. 일단 소설이 시작되었다 하면 한 시대를 다 쓰고 말 작정인 것 같다. 글이란 갈고 닦을수록 짧아지는 법이다. 짧되 촌철살인하는 예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요즈음은 책들이 너무 두터워서 읽기도 전에 겁부터 난다.

그런데 신문의 광고난을 보면 모두가 베스트셀러라니, 그 책들은 누가 다 사 보는지, 그러면서도 출판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왜 자꾸만 들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구 하는 독자들 앞에, 다만 아는 것만을 찾아 쓰고 있지 않았나 반성해 볼 일이다.

거리에 범람하는 책들을 보면서 다시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을 떠올려 본다. 그것들이 진짜 ‘본 것’일까. 아니면 남한테 들어서 다만 ‘아는 것’들을 꾸민 것일까.

김급진단 2 **내우외환의 불황터널 탈출구 없나**
종이값 인상, 가격파괴 논쟁 등 출판계 현안 논의

초점 8 **“저작권법, 소급보호 조항 인정할 수 없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에 출판계 큰 반발

특별대담 10 **“한국과 일본의 역사장벽, 책으로 허물자”**
‘이와나미’ 아스에 사장/한길사 김연호 사장

어린이와 출판 14 **어린이책도 입체화 고급화 바람**

16 **그림책의 새로운 이미지 세계**

18 **국내 유일의 아동도서 전문유통 ‘서당’**

표지 인터뷰 15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컨테스트’에 입선한 이은경씨**

얼굴 17 **어린이문학 전문지 《아침햇살》 창간한 이운희씨**

현장 스케치 19 **‘뜨거운 상징’으로 돌아온 김현문학비**

출판계 진단 20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사라지는 ‘소설’**
대여점 영향 등으로 소설출판의 퇴조현상 조짐

출판 화제 21 **자료와 기억으로 복원한 ‘나의 아버지’**

22 **책으로 이끄는 레저스포츠의 세계**

작가가 읽는 명화 23 **보들레르가 읽은 들라크로아의 작품세계**

서평 24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이은봉

성진근 《국민경제와 한국농업》—이호철

25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송귀영

26 **나라정책연구원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최한수

스파크 《20세기의 디자인과 문화》—정경원

27 **최종덕 《부분의 함은 전체인가》**—정병훈

종합서평 28 **적들이 숨어버린 시대의 절망과 그리움**—최성실

이 책 그 사람 30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펴낸 박미하일씨

《재미있는 돈이야기》 펴낸 조병수씨

31 **《나의 테마는 사람...》** 펴낸 김진해씨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펴낸 변영주씨

세계의 출판 32 **20년만에 밝히는 베트남전의 모든 것**
美전국방장관 맥나마라의 회고록 출간으로 화제

34 **신간 안내 / 44 새로운 책**